2014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1차 인문계열 논술고사

해설 및 예시 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이러한 독해와 분석 및 응용, 그리고 작문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이 문항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생활, 교과서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도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등에서 다룬 언론의 자유 문제를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수험생들이 제시된 과제를 친숙하게 느끼는 동시에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 수험생들의 일상적 체험과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은연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의 관점을 채택하고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였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현대 <u>민주 국가</u>에서 <u>언론의 자유</u>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u>언론의 책임</u>도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문항 1-가]의 예시답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이 <u>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u>로 정보를 선별하는 <u>분별력</u>이 있기 때문에 <u>언론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u>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글은 그 근거로 존 밀턴, 밀, 토마스 제퍼슨 등의 생각을 들었다. <u>밀턴</u>은 인간이 자유롭게 논쟁하는 가운데 진리가 밝혀진다고 하였고 <u>밀</u>은 어떤 의견의 진위나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의견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u>제퍼슨</u>은 민주 국가에서 정치 기관보다 언론이 더 핵심적이라고 하였다. 이 글은 <B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u>언론의 사회적 책임</u>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역사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낳았던 폐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 자유의 제한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미국의 사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글은 <A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조선의 언론 기관과 상소 제도를 소개하면서 조선에서 관리나 백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등의 삼사는 조정이나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왕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상소를 통해서는 관리뿐 아니라 백성들이 누구든지 왕에게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제국가인 조선에서도 1인 독재가 아니라 공론 정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이 글은 <B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언론이 자유를 남용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첫 사례는 폐위된 나폴레옹이 유배지를 탈출하여 파리로 귀환했을 때 나폴레옹의 권력 재탈환 가능성에 따라 기사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이 비판 기능을 잃고 권력에 영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는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사건의 본질 전달보다 독자들의 호기심 자극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선정주의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A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민주 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정보가 제한 없이 유통되어야 한다. 민주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운영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합법적인 권력이라도 남용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으므로 그 주요 수단인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남용하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감시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302자)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소개된 두 편집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원칙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원칙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둘 이상으로 참고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A안>을 선택한 경우:

대학신문의 공적 사명을 위해 주제에 따라 게재를 제한하는 A안을 지지한다. 대학신문은 학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을 실을 때 신중해야 한다. 만약 신문에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 신문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글 역시 구성원의 올바른 판단을 막아 결국 학교 전체에 해를 끼친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공공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고 따라서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

언론 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언론 자유가 남용되는 예는 언제 어디서나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의 이익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신문이 권력에 밀착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흥밋거리 위주의 보도가 있었다. 제한을 두지 않으면 대학 신문에도 학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글, 글쓴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흥미 위주의 글 등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게재 제한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투고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아 공동체의 성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투고자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투고자에게 이 신문의 공공성을 상기시켜 좀 더 책임감 있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게재 제한은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즉 학내 민주적 여론 형성의 한 수단이다. (800자)

* <B안>을 선택한 경우:

대학신문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재 제한을 두지 않는 B안을 지지한다. 대학신문의 독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존재이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공표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고의 게재를 막는다면 진리가 편집진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 파묻히게 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자유로운 언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B안을 지지할 것이다. 전제군주국가인 조선마저도 삼사와 상소를 통해 여론이 임금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신문은 학내외의 여론을 반영하거나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므로 기고문의 자유로운 게재를 제한한다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세종이 자신의 필생의 업적을 반대하는 상소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했듯 어떤 주제의 글이라도 학내외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부적절한 글이 구성원 및 학교 전체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집단이나 상업적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이 실리면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이 실리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윤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는데 정보나 주장이 권력에 의해 표명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글의 게재에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804자)

※ 제시문에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A안(제한 함)> 선택의 논거**:
  - 언론의 사회적 책임
  - 언론 자유의 폐해
  - 실제 사례들(미국, 나폴레옹, 자살보도)
  - 인용문(블랙스톤)
* **<B안(제한 안 함)> 선택의 논거**:
  -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믿음. (인간의 분별력에 대한 믿음).
  -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
  - 언로의 확보는 공론 정치의 수단(조선의 사례)
  - 인용문들(밀턴, 밀, 제퍼슨)

※ 반박과 재반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안(제한 함)>을 선택한 경우**:
  - 표현의 자유는 그래도 중요함 →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님.
* **<B안(제한 안 함>을 선택한 경우**:
  - 자유 남용이 우려됨 → 일부의 문제이며 그것도 독자의 분별력으로 해결 가능.

4. 평가 기준

[문항 1 - 가]

1. **[기본 조건]**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민주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 민주 국가에서 언론 자유의 필요성 1: 알 권리 보장
■ 민주 국가에서 언론 자유의 필요성 2: 권력 감시와 비판
■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론 자유의 한계

2. **[논리성]**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소]**
   - ■ 제시문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지 말아야 함.
   -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문항 1 - 나]

1. **[논리성]**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가능함.
   - 논거가 적절하고 심도 있게 서술됨.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한 경우.

2. **[기본 조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제시문 (나)~(마)에서 1개 이상 활용하여 첫 논거를 서술함
   - 제시문 (나)~(마)에서 또 다른 1개 이상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서술함.
   -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 (이 내용이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3. **[형식 요소]**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한쪽을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달지 않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5. 제시문 출전

(가): 고등학교『도덕』(금성출판사),『생활과 윤리』(교학사),『법과 정치』(천재),『윤리와 사상』(교학사)과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나):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밀, 『자유론』, 밀턴,『아레오파지티카』와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다): 고등학교『생활과 윤리』(천재)와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라): 고등학교『한국사』(비상교육, 삼화출판사)와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마): 고등학교『생활과 윤리』(천재)와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실제 자료를 요약한 표를 분석하여, 그 자료들 속에 나타난 사회 현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및 해석 능력을 평가한다. 이번 문항은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의 시(時)계열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회 현상은 물론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의 전략 및 소비자 행태 변화 등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 자료 및 논제 해설

<다음>에 제시된 주장들의 근거를 주어진 자료에서 찾아내는 문제로, 제시된 주장은 모두 자료와 부합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갑]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도별 수입액이 수출액에 비해 증가율의 변화가 작다고 주장한다. 이 중 수출액의 증가율은 <표 1>, 수입액의 증가율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년 동안의 수출액과 수입액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액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각 약 30%$\left(=\frac{39,276}{30,318}-1\right)$, 2%$\left(=\frac{40,227}{39,276}-1\right)$이고, 수입액의 경우 각각 약 26%$\left(=\frac{3,542}{2,809}-1\right)$, 27% $\left(=\frac{4,494}{3,542}-1\right)$이다. 수출액과 수입액 증가율의 연도별 차이를 비교하면, 수출액에서 28%p(=|2%−30%|), 수입액에서 1%p(=|27%−26%|)로 수입액이 더 작다.

[을]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수입 대수의 증가가 승용차 수입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본 진술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액을 증가시킨 숨겨진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액의 증가는 ①수입 대수가 증가하거나 ②수입 평균 단가가 높아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수입 대수의 증가율은 <표 4>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수입 평균 단가는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 3>의 수입액과 <표 4>의 수입 대수를 통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첫째, <표 4>에서 2년 동안 수입 대수의 증가율은 약 52%$\left(=\frac{1,469}{965}-1\right)$이다. 둘째, 우선 <표 3>과 <표 4>를 통해 수입액을 수입 대수로 나누어 연도별 수입 평균 단가를 각각 계산하고, 다시 단가간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약 5%$\left(=\frac{4,494}{1,469}\div\frac{2,809}{965}-1\right)$이다. [수입액의 증가율은 수입 대수의 증가율과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로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수입액 증가율) = (1+수입 대수 증가율) × (1+수입 평균 단가 증가율), 1+60%=(1+52%)×(1+5%)] 이 결과 수입 대수의 증가율이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수입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수입 대수의 증가이다.

[병]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연도별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가격이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표 1>과 <표 2>를 이용해 수출액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수출 대수로 나누어 수출차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고, <표 3>과 <표 4>를 이용해 수입액을 수입 대수로 나누어 수입차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단가 차이가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작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단가 차이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약 1.9만 달러$\left(=\frac{3,542}{1,097}-\frac{39,276}{29,501}\right)$, 약 1.7만 달러$\left(=\frac{4,494}{1,469}-\frac{40,227}{29,314}\right)$이다. 따라서 그 차이는 2012년에 줄어들었다.

[정]은 2012년 승용차 부문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여기에 중형차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표 1>의 승용차 수출액에서 <표 3>의 승용차 수입액을 차감하면 각 차종별 무역수지를 계산할 수 있다. 승용차 부문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35,733백만 달러(=40,227－4,494)이다. 소형차 부문은 4,399백만 달러(=4,422－23), 중형차 부문은 30,202백만 달러(=32,886－2,684), 대형차 부문은 1,133백만 달러(=2,919－1,786)으로, 무역수지 흑자에 중형차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3. 예시 답안

갑의 주장은 <표1>과 <표3>에서 확인된다. 수출액의 증가율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0%[=39,276/30,318-1]와 2%[=40,227/39,276-1], 수입액의 증가율은 각각 26%[=3,542/2,809-1]와 27%[=4,494/3,542-1]이다. 증가율 차이는 수출액에서 28%p[=|2%-30%|], 수입액에서 1%p[=|27%-26%|]로 수입액이 더 작다. 을의 주장은 <표3>과 <표4>로 뒷받침된다. 수입액 증가율은 수입 대수 증가율 52%[=1,469/965-1]와 수입단가 증가율 5%[=(4,494/1,469)÷(2,809/965)-1]로 분해되는데, 수입 대수 증가율이 더 높다. 병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모든 표를 활용해야 한다.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가격 차이는 2011년 1.9만 달러[=3,542/1,097-39,276/29,501]에서 2012년 1.7만 달러[=4,494/1,469-40,227/29,314]로 줄어들었다. 정의 주장은 <표1>과 <표3>으로 알 수 있다. 승용차 부문의 무역수지는 35,733백만 달러[=40,227-4,494] 흑자인데, 중형차가 30,202백만 달러[=32,886-2,684]로 가장 규모가 크다. (612자)

4. 평가 기준

가. 갑, 을, 병, 정 모두의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계산된 최종 값을 명시하지 않고 계산 과정만 기술해도 무방하다.

나.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정해진 분량 준수 등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갑의 진술에 대한 근거로 <표 1>과 <표 3>을 이용한다. 수출액과 수입액 각각 2011년과 2012년 증가율을 모두 계산해야만 완벽한 답안으로 인정한다. 증가율 대신 단순히 수출액과 수입액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차이만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증가율의 변화분을 절대값 대신 차이 그대로 계산한 경우에는 부분 감점한다. 증가율 차이의 단위를 %p 대신 %로 표시해도 부분 감점한다.

라. 을의 진술에 대한 근거로 <표 3>과 <표 4>를 이용한다. 진술에서는 수입 대수만이 나와 있지만, 숨겨진 수입 평균 단가를 찾아서 수입 대수의 증가율과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을 비교해야 완벽한 답안으로 인정한다.

모범답안에서는 수입 평균 단가를 직접 계산한 다음, 이의 증가율을 수입 대수의 증가율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해도 맞는 답안이다. "수입액의 증가율 60%이고 수입 대수의 증가율은 52%이다.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두 수치의 차이인 8%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은 수입 대수의 증가율보다 낮다. 따라서 수입 대수의 증가가 수입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와 같이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을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수입 평균 단가의 증가율이 수입 대수의 증가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언급해야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마. 병의 진술에 대한 근거로 모든 표를 이용한다. 모범답안에서는 연도별로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단가 차이를 직접 계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서술할 수도 있다. 먼저 연도별로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단가를 각각 계산하고, 역시 연도별로 그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차이가 2012년에 줄었다고 서술해도 무방하다.

또한 연도별로 수입 평균 단가에서 수출 평균 단가를 직접 차감하여 비교하는 대신, 아래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 "수출 평균 단가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 평균 단가는 3.2만 달러에서 3.1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출차와 수입차의 평균 단가 차이는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부분 감점한다.

바. 정의 진술에 대한 근거로 <표 1>과 <표 3>을 이용한다.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서 구한다. 따라서 무역수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차종별 무역수지를 계산해서 비교해야 한다. 이를 차종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위가 잘못된 경우에도 부분 감점한다.

5. 자료 출전

관세청, www.customs.go.kr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